

역사 다시 읽기.

- ① 하나 4.19혁명
- ② 둘 6월민주항쟁
- ③ 셋 5.18민중항쟁
- ④ 넷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마침내 우리의 불꽃은 치솟았다.
 우리들의 불꽃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되어
 거리와 골목
 교정과 광장에서
 민중의 손에 들려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빈민과 진보적인 지식인
 학생들의 손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불기둥되어
 하늘을 찌르며 타올랐다.
 (중략)
 곳곳에서
 군부독재 타도가 터져 나왔다.
 우리의 절규는
 우리들의 항거는
 우리들의 혁명은
 진압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임수생,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중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펼쳐나가는
 특수공공법인입니다.



ISBN 89-91057-04-7
 ISBN 89-91057-00-4(세트) 값 3,000원

역사 다시 읽기. 넷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하기 지음 |

김하기

지은이 김하기는 1989년 창작과 비평에
 『살아있는 무덤』으로 등단한 소설가로서
 1981년 부림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현재 창신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완전한 만남』, 『복사꽃 그 자리』 등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 김하기 지음 |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낸이 | 박형규 펴낸일 | 2004년 10월 11일
주소 | (100-120)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소리통 | (02)3709-7500 글통 | (02)3709-7530 | <http://www.kdemocracy.or.kr>
맏시 | 도서출판 오름 (02)585-9122,3 찍은곳 | 서진인쇄
사진자료협조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 다시 읽기' 를 펴내며

역사는 과거를 빌미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 놓는 퇴행의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나아가 방향은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생생한 현실인식입니다. 오늘을 삶과 사회를 직시하고 내일의 변화와 대안을 찾기 위한 항해의 나침반이자 지도입니다. 역사는 기억을 뛰어넘는 성찰이며, 지난날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동시에 오늘을 재인식하는 진리 탐구의 망원경입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족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지금 이곳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같은 과정이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역사 다시 읽기'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짚어지고 나갈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차례

1 누리에게—잊혀진 항쟁의 추억 _7

2 부마항쟁에 이르기까지 _11

1. 자유란 무엇인가
2. 학교의 병영화
3. 꽃잎처럼 떨어진 YH 여공 김경숙
4. 김영삼 총재 제명과 물밑으로 흐른 민주화운동

3 항쟁의 태동 _37

1. 불발된 시위 1 —〈민주선언문〉
2. 불발된 시위 2 —〈민주투쟁선언문〉

4 항쟁의 폭발 _49

1. 점화된 교내시위
2. 민주화의 대장정
3. 도심지 항쟁폭발, 달리는 민주주의
4.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5. 항쟁의 확산
6. 최후의 계엄령

5 항쟁의 확산 _89

1. 되돌아 온 마산 3·15 의거 정신
2. 마산이 일어서면 나라가 바뀐다
3.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6 다시, 누리에게—민주주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_107

1

누리에게—
잊혀진 항쟁의 추억



누리야, 너와의 충격적인 대화가 없었더라면 이 항쟁일지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넌 역사책을 읽다 말고 불쑥 아빠에게 물었지.

“아빠, 부마민주항쟁이란 게 뭐예요?”

“음, 그건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지. 그 사건으로 18년간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게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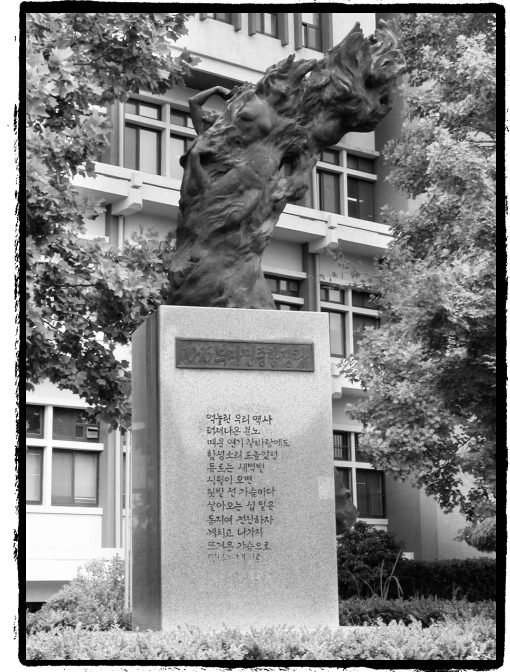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게 썩 좋은 일은 아니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분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집권한 정권을 끝내게 한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누리야, 아빠는 너의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부마민주항쟁이 썩 좋은 일이 아니라니! 물론 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마항쟁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참으로
승고하고 자랑스런
항쟁이었다



... 부마항쟁기념탑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다니 하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네 탓을 하기 전에 너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 주지 못한 이 아빠가 더욱 부끄러웠다.

누리야,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이 말은 심각한 주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주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정치와 같은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국민들이었다. 아빠는 지금도 확신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체제 대

신 민주주의체제가 들어섰더라면 오늘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누리야, 부마민주항쟁은 18년간의 악마 같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끝나게 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잊혀진 항쟁이 되었다. 부마항쟁은 왜 잊혀진 항쟁이 되었을까? 박정희 독재정권 다음으로 이어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그 사건을 땅 속 깊숙이 파묻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빠 또한 그동안 생활 전선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너에게 항쟁의 가치를 얘기해 줄 틈이 없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시 그 뜨거운 항쟁의 기억을 땅 속에서 파내어 이야기해야겠다. 부마항쟁은 영화 '살인의 추억' 처럼 추억으로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것임을. 카(E.H.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라고 하였다. 누리야, 내가 지금 너에게 '부마항쟁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참으로 숭고하고 자랑스런 항쟁이었다' 라고 말해 주어도 너는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과거의 역사와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역사는 살아서 너에게 말을 걸 것이다. 아빠의 말투는 다소 거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미래세대다운 너만의 언어와 사고로 역사에 말 걸기를 해 봐. 그러면 역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아빠가 추억을 더듬어 항쟁일지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부마항쟁에 이르기까지



1. 자유란 무엇인가

누리야, 아빠가 대학생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난다. 첫 수업은 교양필수 과목인 철학개론 시간이었다.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크게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적고는 대답할 학생을 찾았다. 모두들 자기가 지적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아빠에게 형형한 눈길을 돌리며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란 무엇인가?”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말하였다.

“자유란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자유라는 말 속에 또 자유롭게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어반복으로 그 자체에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 사회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완전하고 순수한 것이어서 민주주의 앞에다 어떠한 아름다운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그 순수성을 더럽힐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를 일컫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처럼 교도적 민주주의니 공산주의처럼 인민적 민주주의니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라는 뜻 모를 답을 적어 놓고는 두루마기 자락을 펴리며 나가 버렸다.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당시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었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억압적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자유로운 상황이 오리라는 필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사람은 현재의 억압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미리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누리야, 너는 일주일 뒤면 중국 상하이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벌써부터 들뜬 기분이더구나. 너의 설렘은 일주일 뒤면 반드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확신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필연의 인식에서 오는 자유라는 게 그와 똑같은 설렘이라면 이해하겠니.

누리야, 그 교수님은 비록 암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첫 강의에서 지성인이 된 우리 대학생들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지금 우리는 군사독재정치하에 살고 있지만 머

값아 반드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리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첫 강의는 마치 어둠 속에서 감겨 있던 내 눈을 번쩍 뜨게 해 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2. 학교의 병영화

누리야, 고교시절 잔뜩 기대하고 들어온 대학생활에는 낭만이라곤 한 톨도 없었다. 아빠는 통기타 연주와 미팅과 여행을 꿈꾸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는 거대한 병영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고 와서 총검술을 해야 했고, 도서관과 식당과 잔디밭에는 ‘잡새’라고 불리는 형사들이 진을 치고 앉아 우리들의 대화를 엿듣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이면 누구나 일주일간 머리를 박박 깎고 군복을 입은 채 전방입소 훈련 또는 집체군사훈련을 해야 하였다.

누리야, 아빠는 여름방학에 집체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간 창원 39사단 연병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머리를 박박 깎은 우리는 연병장에 들어가자마자 곤봉을 들고 명령하는 교관을 만나게 되었다.

“왜 이리 무질서해. 모두들 차렷, 열중 셋! 좌향좌! 우향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갔!”

우리 대열 중에 동작이 굼뜬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움직임이 박자에 맞지 않았다. 그러자 교관은 그 학생을 지목해 말하였다.

“나왔! 본때를 보여 주겠다!”

교관은 걸어 나오는 그 학생에게 달려가더니 개 잡듯이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갓은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하였다. 그런 사나운 폭력을 난생 처음 본 우리들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이후 공포에 잔뜩 질린 우리들은 한 동작이라도 틀리면 죽을세라 교관의 명령에 맞춰 마치 기계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누리야, 그 교관은 “거봐, 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우리의 질서정연한 대오를 보며 매우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이 이처럼 온통 병영화가 되어 있고 공포의 마당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

1970년대는 머리를 기를 수도 없었고 미니 스커트를 제대로 입을 수도 없었다. 장발은 경찰이 잡아 가위로 머리를 깎아 버렸고, 경찰은 30cm 자를 가지고 다니며 미니 스커트의 길이를 재어 무릎에서 15cm 이상이면 처벌하였다. 밤 12시 이후엔 통행금지가 있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힘들었다.

매일 저녁 국기강하식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바쁜 일이 있



*** 통행금지 직전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

1970년대는 공권력이
머리와 치마 길이까지
간섭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는
그런 시대였다.

어도 걸음을 멈춰야 했고 조그만 운동회를 하더라도 장마처럼 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서야 시작해야 하였다. TV나 영화를 볼 때는 의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는 뉴스를 봐야 했고 애국가가 나오면 모두 기립해 황지우 시인의 시처럼 '새들도 세상을 뜨는' 모습을 보아야 하였다.

당시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유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신체제에 불만을 터

뜨리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람, 특히 통일운동을 하다 빨갱이로 몰린 사람은 지하 고문실에 들어가서 인간의 인내력을 넘어서는 온갖 잔인한 고문에 시달려야 하였다. 수사실과 감옥에서 가해진 정치범들, 특히 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문 보고서를 보면 삼사일간 잠을 안 재우고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하는 건 기본이고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고문, 벌건 연탄집게로 사람을 지지는 고문, 손·발톱 밑으로 대나무 바늘을 넣어 찌르는 고문, 사람의 손발을 꿰뚫어 막대기에 꽂아 몇 시간이고 매달아 놓는 통닭구이 고문 등 일제 시대에 자행된 고문들이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고문은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코로 붓는 물고문과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선을 묶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고문, 그리고 누리야, 너에게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고문인데, 놈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발가벗겨 성적 폭행을 하는 성고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개처럼 지하실로 지하실로 끌려갔다.

앉아. 일어섯. 뒤로 돌았. 차렷! 옆드려!

허리 위로 구뚫발이 내리 찍힌다.

손을 등 뒤로 올리고 한 쪽 다리를 들어올리면

또 한 차례의 구뚫발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내리 짓밟는다.

이마뼈이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지고 일어서면

시커먼 주먹이 복부로 날아와 다시 고꾸라진다.

너 빨갱이지? 아닙니다.

이 좃만한 새끼가 헛바닥을 뿔아 버려야 정신 차리겠어!

—이산하 「불심검문」 중에서

누리아, 병영훈련에서 보았듯이 본때를 보이는 끔찍한 군사적 폭력과 고문, 공포정치 아래 전 국민은 일사분란하게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해 로봇처럼 움직여야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아빠는 암울한 시절에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탐독하였다. 조백헌 원장(대령 출신)이 섬을 간척해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자 원생들은 이렇게 반발하였다.

“원장님이 만들려고 하는 천국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원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와 참여 없이 원장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타율적인 의사에 의해 건설된 것이므로 원생들의 천국이 아니라 원장님의 천국이고, 당신들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설의 조백헌 원장처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건 당신들의 천국이었을 뿐 우리들에겐 고문과 폭력, 공포와 독재의

지옥이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들에 의한 당신들의 천국, 즉 영원한 유신독재체제를 건설하려다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건에 의해 쓰러진 것이다.

3. 꽃잎처럼 떨어진 YH 여공 김경숙

누리아, 대학을 다니면서 아빠는 한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사회과학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늘진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밤이면 온천천 천변에 세워진 문성야학에 나가 야학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을 마치고 책을 챙기고 있는데 현주라는 학생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궁금한 게 있다면서.

방직공장에 다니고 있는 현주의 나이는 지금 네 나이 또래였겠구나.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고향집을 떠나 부산으로 와서 T방직공장에서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와서 공부하는 착실하고 근면한 학생이었다. 현주는 너를 닮아 예쁘장했지만 늘 피곤에 절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

부모 잘 만난 네 또래 다들 자는 시간

열다섯 열여섯 한참 달콤한 잠을 포기하는 너희들에게

공들이 공순이 신세에 조용필 노래만도 못하고
 한 끼 라면도 되지 않는 한국사를 가르치며
 나는 분단된 한국사보다 더 아프게 절망하누나.
 천막교실 찢어진 틈새로 언뜻언뜻 보이는
 초겨울 별빛들이 파리하듯 부서지고
 폭포마냥 쏟아지는 허기보다 독한 잠을 건디지 못해
 옷핀을 찌르는 순이의 손등 위로 붉은 피가 맺혔다
 —정일근의 「야학」 중에서

우리는 야학이 있는 온천천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하였다. 붕어와 개구리가 살았던 맑았던 온천천은 공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썩어 간장물처럼 시커멓게 변해 버렸다. 지금은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개구리가 살고 바다에서 승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구나.

현주가 궁금하게 여긴 건 일주일 전에 발생한 YH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현주는 더욱 궁금했을 것이야.

누리야, 아빠는 현주에게 YH 사건과 죽은 김정숙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YH무역주식회사는 장용호라는 자가 세운 가발가공회사였다. 장용호는 자기 이름 '용호'의 이니셜을 따서 회사명을 YH라고 지었다. YH무역은 가발 수출 호경기를 만나 한때는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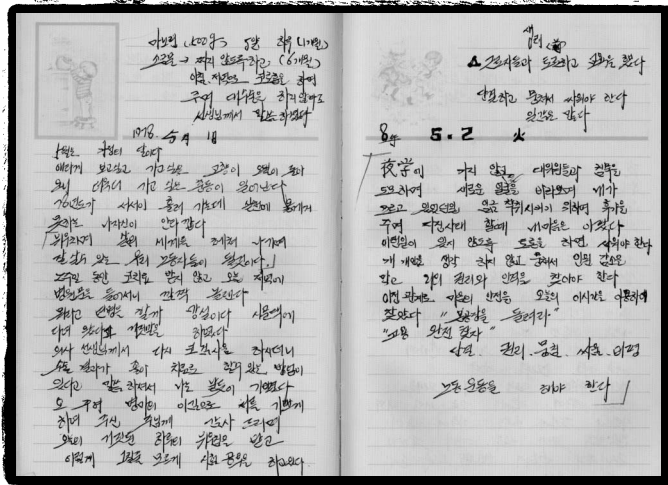
한 노동자가 죽어갔다
 열아홉살 나이에 세상 구경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 김정숙

실적 1백만 불을 달성하고, 종업원이 4천여 명이 될 정도로 번창하였다. 그러나 사장이 2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데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70년대 후반 가발산업이 불경기를 맞게 되자 회사는 여공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여공들이 노조를 만들어 이에 반발하자 YH회사는 아예 회사의 문을 닫고 폐업 공고를 내어 버렸다. 갈 데가 없어진 YH 여공들은 신민당 총재 김영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8월 9일부터 신민당사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은 그들의 주특기인 곤봉과 몽둥이로 대답하였다. 농성 사흘째인 8월 11일 1천여 명의 무술 경관들이 신민당사에 들이닥쳐 가려린 여공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끌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YH 여공 김정숙이 꽃잎처럼 떨어져 죽고



... 김경숙의 일기 중에서

말았다.

“지금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경제발전의 주인공인 근로자들을 짓밟는 행위는 자기모순이야. 박정권은 이 사건으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주는 아빠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도 YH 무역회사 못지않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리야, 그렇다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왜 힘없고 가녀린 여공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뒤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유신정권의 일차적인 목표는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무역회사의 여공들을 강제 해산하여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누르는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란 무엇이였을까? 누리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니? 전태일은 청계천 피복공장의 노동자였다. 그는 턱없이 낮은 임금과 긴 시간의 노동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하였다. 처음에 전태일은 사용자들에게 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전태일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한 최소한의 법규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자본의 증식, 경제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다. 전태일은 자신과 동료 노동자들이 기계취급당하는 참담한 모습에 절망한 끝에 온몸에 불을 질러 분신자살을 하였다. 전태일은 어두운 시대에 온몸을 횡설로 불사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누리야, 왜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벌어졌을까. 비극의 씨앗은 박정희 정권이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뒤 경제발전을 지상 목표로 삼아 노동자와 농민을 철저히 희생시키는 정책을 펼칠 때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다. 국민들의 생필품이라는 빌미로 농

산물 가격을 값싸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빗더미에 올라앉은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도시에는 일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로 온 그들은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 공장과 같은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 일해야 하였다. 전태일, 김경숙 그리고 문성야학의 현주처럼 하루 12시간, 14시간 노동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하는 기계가 된 것이다.

도시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생존마저 위태롭게 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민주노조 결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주 낮아야 싼 값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래야 외국상품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무조건 묵살하고 노동운동은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강경일변도의 노동탄압 과정에서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났고 동일방직 사건이 일어났다. 동일방직 사건이란 인천 동일방직회사 측이 민주노조를 결성한 여공들에게 똥물을 끼얹고 124명을 해고한 사건을 말한다. 나라와 회사를 위해 손발이 닳도록 일하는 어린 여공들에게 개돼지에게도 뿌리지 않는 똥물을 끼얹다니! YH 사건과 여공의 죽음도 바로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나마

김경숙은 살인적인 노동조건에서 이름 모르게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 중 이름이라도 남아 있는 노동자였다.

한 노동자가 죽어갔다
 남아 빠진 기계 품에 눌러
 모습도 알아볼 수 없는 송장으로 변하였다

열아홉 살 나이에 세상 구경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상조기를 달자고 했더니
 힘 약한 노동자에게 달지 못하게 하네
 너희들도 언젠가 죽음 앞에 심판할 날 오겠지

—김해화 「죽음」 중에서

다행히 YH 사건은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 가운데 정치 이슈화되면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민주항쟁과 대통령 암살사건이 일어나면서 YH 사건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

던 것이다.

누리아, 지금도 가끔씩 이 아빠는 현주를 생각해 본단다. YH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현주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힘든 노동으로 늘 피곤에 절어 있던 현주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것이다.

4. 김영삼 총재 제명과 물밑으로 흐른 민주화운동

누리아, YH 사건 때 박정희 정권이 가너린 여공들에게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을 기억하겠지.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여공들의 농성을 해산할 때 신민당사에 함께 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의원, 기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버렸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휘두르는 폭력이 바로 군사독재정권의 본질인 것이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도 경찰에게 멱살을 잡혀 개처럼 끌려 나오는 수모를 겪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왜 김영삼 총재에게까지 무자비한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강경투쟁으로 돌아선 야당인 신민당을 겁 먹게 해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총재와 신민당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1978년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저 혼자 출마하여 '체육관 대통령' (누리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풍자해서 이렇게 말한다)으로 뽑히고 난 몇 달 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관권을 동원한 온갖 불법 선거를 다 했음에도 득표율이 31.7%에 그친 반면 신민당은 32.8%를 얻어 창당 후 처음으로 여당을 이기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국민들도 18년간의 박정희 장기 독재정권에 심한 염증을 느껴 공화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9년 5월 신민당 총재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야 강경노선을 주장한 김영삼이 온건노선을 주장한 이철승을 누르고 새 총재로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총재로 당선된 뒤 유신헌법 개정과 민주화 요구를 당론으로 내놓아 정면대결을 선언하였다.

양처럼 순했던 신민당이 갑자기 사자처럼 거세게 도전해 오자 매우 괴씸하게 생각한 박정희는 YH 사건을 진압할 때 김영삼과 신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던 박정희는 김영삼의 NYT 기자회견 사건을 빌미로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직에서 제명하고 10월 4일에는 그의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해 버린다. NYT 기자회견 사건이란 김영삼 총재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기자에게 '미국은 한국의 박정희 독재정권을 돕지 말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구실 삼아 총재직을 박탈했던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박정희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버렸다.

김영삼에 대한 이런 정치적 박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 특히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민심은 물밑에서 움직이는 해일처럼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누리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기 불과 12일 전에 발생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이 부마민주항쟁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런 정치적 사건이 항쟁 발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3·1 운동이 고종황제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고, 5·18 민주항쟁이 김대중의 구속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시각이다. 역사는 항상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즉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민중이며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3·1 운동과 5·18 광주민주항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역사의 주인인 민중들이지 몇몇 사람들이 엮어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씨앗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때부터 심어졌다. 군사쿠데타는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후진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권방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쿠데타가 1960년대와 1980년대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낮이 뜨거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한다.

누리아, 쿠데타가 왜 나쁜 것일까? 선거라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칼로 짓밟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기 때문이란단다. 쿠데타는 강도가 칼로 집 주인을 내몰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들어앉는 것과 똑같다. 박정희도 1961년 5월 16일 합법적인 장면 정부를 탱크와 총으로 갈아엎고 권력을 빼앗은 것이다. 이런 강도짓에 국민들은 분개했고 18년 집권기간 내내 국민들은 총칼에 빼앗긴 권력을 도로 찾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였다. 그때마다 박정희는 각종 악법을 만들어 반대하는 국민을 감옥에 처넣어 버렸고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총칼을 든 군인들을 앞세워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였다.

그런데 이런 천하무적의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관권을 동원한 온갖 부정 선거를 저질러 보았지만 매번 상대 후보에게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진땀나는 승리를 하곤 하였다. 선거 뒤에는 상대 후보가 '내가 정신적인 대통령이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는 부정 선거다' 라고 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아예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악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버렸다. 당시의 간접 선거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국

민들이 뽑고 그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이들 대의원들은 거수기 노릇을 하기 마련이다. 1978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박정희 대통령을 99% 지지하여 당선시켰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실시한 간접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풍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에는 국회의원의 1/3은 국민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해괴망측한 내용도 끼워 넣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정치 역사상 특이한 존재인 유정회 국회의원들이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번거로운 직접 선거를 하지 않아도 영구히 대통령을 해 먹을 수 있는 장기집권의 길을 닦아 놓은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하고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에 대해 전국의 교수, 학생, 민주인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대학과 거리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였다.

유신헌제가 시작된 뒤 전국의 대학에서는 유신헌법반대운동이 일어났고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5년 2월 15일 현재 긴급조치로 구속, 제적된 학생이 전국에서 54명인데 부산의 부산대와 동아대에서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제적되어 부산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부산에서

는 오랫동안 시위를 볼 수 없었고 1975년 이 시기의 시위는 전설이 된다.

1975년 11월 22일 부산대학교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범인을 추적해서 잡고 보니 뜻밖에도 일본에서 부산대학교에 유학을 온 재일교포 유학생 김오자(사학3)였다. 한 건 하기를 원했던 수사기관은 ‘옳다구나!’ 하며 이 사건을 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갔다. 일본 등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녀와 만나 얘기했던 부산 대학생 6명은 영문도 모른 채 간첩단 사건에 굴비 엮이듯 함께 엮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누리아, 이처럼 박정희 군사독재는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과 고문을 가한 뒤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으로 조작해 감옥에 가두곤 하였다.

누리아, 특히 법률 조항이 모호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빨갱이로 몰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기본이고 선량한 사람,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자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감옥 안에 가두는 그런 악법이었다.

너를 그냥 두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반세기 넘도록
너를 앞세운 군홧발에 짓이겨진

수많은 양심들이
아직도 울부짖고 있는데
너 때문에
한반도가 핏빛으로 물들었고
동강난 허리에선
붉은 피 흐르다 못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통일을 논하기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네놈을 죽이는 일이다

이제 우린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네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칠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안윤길 「국가보안법」 중에서

군부독재의 하수인인 정보기관은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1976년에는 중부교회 대학생부 회지에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하는 따위는 말고……”라는 말의 표현을 문제 삼아 중부교회 청년회 회원인 김영일(부산대 3), 조태원(부산대 3), 이태성(동아대 2)을 구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누리아, 상상할 수 있겠니? 암울한 유신독재 시절에는 ‘유신 따위’라는 말 한 마디조차 병긋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었다. 반면 모든 비판을 차단한 독재자 박정희는 스스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이 되어 가고 있었다. 어떤 농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보자 ‘나랏님!’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렸다는 웃지 못할 일화까지 있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에서는 물밑으로 민주화운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78년 4월 17일에는 〈부산대 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이 뿌려져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4·19 혁명정신을 본받아 유신독재를 몰아내자!’는 선언문을 뿌린 정의영(사학 3), 이성동(의예 2), 전중근은 구속되고 서연자(미술교육 2)는 제적되었다.

4·19 선언문 사건에 고무된 이상경(부산대 1)과 이희섭(부산대 1)은 ‘페인팅’이라는 색다른 투쟁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둘은 밤에 몰래 운동장 스탠드 벽에 푸른 색 스프레이로 커다랗게 ‘박정희 물러가라’, ‘유신철폐하라’, ‘교련반대’라고 썼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찰들이 페인팅 글자를 전지로 덮어씌워 학생들이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학생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주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하였다. 이 밖에도 공관을 알리는 전단 살포, 화장실 낙서 사건 등 유신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누리아, 1년 뒤 찾아올 거대한 항쟁을 맞기 위해 대학 캠퍼스



*** 양서협동조합이 운영한 협동서점

부산에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운동은
들불처럼 퍼져나가
민주주의 의식을
높였다

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양서협동조합' 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김형기 씨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양서협동조합은 민주화 운동가와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조합원들은 책을 읽고 학습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인지 알게 되면서 유신을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단체의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 마산, 대구, 울산, 서울, 수원, 광주 등 7개 주요 도시에 '양협' (양서협동조합의 약칭)이 결성되어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스터디 그룹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높여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후 김형기 씨는 부마민주항쟁의 주동자로 검거되고 양협 조합원 300여 명이 조사받았다. 그리고 뒷날 부림 사건과 연루된 조합원들 10여 명이 구속되어 양협은 해체되고 만다.

하지만, 서울양협 산하 한 소모임으로 출발했던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어린이 독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누리야, 네가 어릴 때 읽은 동화책들 중 많은 책들이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부산에서 양서협동조합이 결성되던 1978년에 부산대학 내에 서는 학생운동 조직이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었다. 일명 '도깨비집' 이라는 지하 서클(동아리)이 생겨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유신독재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었다. 아빠도 이 동아리에 들어가 유신체제가 왜 나쁜지 알게 되었다. 1979년으로 들어오면 이들 지하 서클(동아리) 스터디 그룹들이 확대·재생산되어 학교 내 아카데미, 성아, 야학팀과 같은 수많은 공개 서클(동아리)들과 연대하여 2학기에는 시위를 한 건 한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누리야, 이처럼 부마민주항쟁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호박이
툭 떨어지듯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다. 비록 예견되고
철저히 준비된 건 아니지만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오
랫동안 땅 밑으로 내린 뿌리들이 축적해 온 힘이 마침내 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이 불이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등으로 분노하던 부산 시민들의 공분을 폭발시켜 부마민주항쟁
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던 것이다. 1979년 10월, 부산
시민들에게는 조그마한 불티만 날려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
는 폭풍 전야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3

항쟁의 태동



1. 불발된 시위1-〈민주선언문〉

누리야, 부산대학교 가을 캠퍼스는 중간고사를 일주일 남겨둔 월요일을 맞고 있었다. 가을 날씨는 맑고 쾌청했으나 캠퍼스에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에서 부산대로 칼과 가위를 보냈다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인데?”

“데모도 못하는 부산대 학생들 거시기를 짝뚱 잘라 버리라고 그림까지 상세히 그려서 보냈단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라고.”

“진짜 학도호국단하고 학과에서 그런 소포를 받았단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데모 한 번 일어날 거라 하더라.”

“아이고, 일어나겠다. 서울에서는 우리보고 유신대학이라 캐췌는데.”

“그래도 모른다. 그날을 대비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라.”

누리야, 이런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아빠도 그중에 한 명이었던다.

한 달 전쯤 이호철, 노재열 선배가 아빠와 김진모, 정수철, 유동현 등 78학번 6명을 불러 좋은 사람을 소개한다며 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조금 있으니 이진걸(공대 3)이 나타나 그동안 유신독재체제하에서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비장하게 말하였다.

“나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유신헌법 선포 기념일인 이번 10월 17일을 전후해 반드시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터이니 도와 주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들 돕겠다는 말을 기꺼이 했고 이호철, 노재열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대선배격인 이상록, 고희석은 시위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이들은 지하 학습 조직이 확대·재생산 구조를 갖추기 전에 시위 참가 등으로 적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시위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뿐만 아니라 투쟁 속에서 조직이 발전한다고 믿었던 77학번과 78학번은 선배들의 반대에도 이진걸의 시위를 돕기로 약속하였다.

누리야, 마침내 거사일인 10월 15일은 왔고, 이 역사적 순간에서 아빠가 할 일은 이진걸이 도서관에서 유인물 뿌리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거사 장소인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도

서관(지금은 과학도서관)은 기말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10시쯤 되자 이진걸이 유인물을 들고 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그 유인물을 받아 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 놀라는 눈빛으로 받아 들고는 상기된 얼굴로 읽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똑똑히 기억한다.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옳고 바람직한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란단다. 그런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런데 이진걸은 민주선언문을 나누어 주고는 사라져 버렸다. 뒤에 안 일이지만 이진걸은 학교 본관, 상대 건물, 식당, 도서관 등 도처에서 유인물을 뿌렸는데도 시위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자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일단 몸을 피해 버렸던 것이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들고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계단 등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다. 누리야, 아빠도 웅성거리는 학생들 틈에 앉아 유인물을 몇 번이나 읽어보며 흥분하고 있었다.

〈민주선언문〉

우리는 학원 내의 일체의 외부세력을 배격한다.(중략)

우리는 언론, 인권, 자유의 유보나 제약에 반대한다.(중략)

우리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당위적인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의 자립 경제에 대한 무방향의 역방향성을 고발한다.(중략)

우리는 총체적인 책임과 결과로서 현 독재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리날 것을 요구한다.(중략)

.....

학우들이여! 효원 학우들이여!(중략)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 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자유의 착취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

— 10시 도서관 앞

민주선언문은 두꺼운 어둠을 뚫고 솟아 나온 한 가닥 빛줄기와 같았다. 민주선언문을 읽은 우리들은 수십 명씩 웅성거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10월 15일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휘발성 있는 기름처럼 번질거리는 이 눈빛들 위에 불을 지필 마지막 한 점 불꽃이 없었던 것이다.

10시 반쯤 되자 조용하던 교정이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오전 10시 도서관 앞’으로 모일 것을 촉구하는 또 한 종류의 유인물이 교내 곳곳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2. 불발된 시위 2-〈민주투쟁선언문〉

누리야, 이진걸의 시위가 불발되던 10월 15일 같은 시간에 범 정대 신재식(사회복지 2)도 본관 강의실과 미리내골 주변 벤치를 돌아다니며 〈민주투쟁선언문〉을 뿌렸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역사의 필연일까? 아빠는 역사의 필연으로 보았다.

구레나룻이 멎진 신재식은 군에 갔다 온 복학생인데도 민주 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민주투쟁선언문〉을 써서 본 관 강의실과 미리내골 벤치에 뿌렸다.

〈민주투쟁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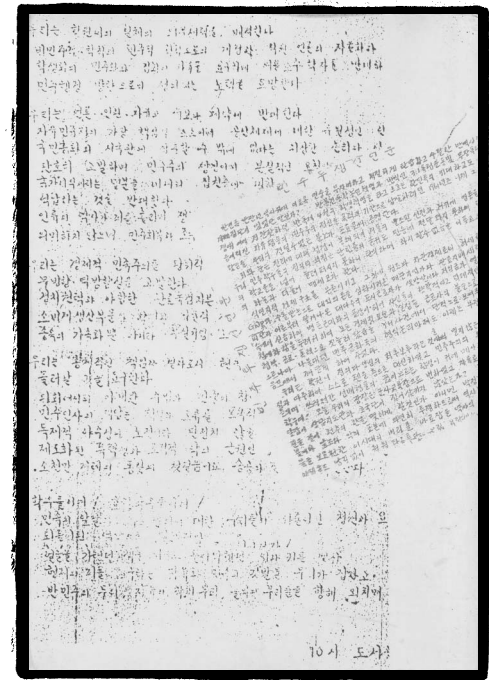
한민족 반만년 역사 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처절하게 탄압 하고 수탈한 반역사적 지배집단이 있었던 말인가?(중략)

귀와 눈은 진리에 대해 봉쇄되어 그들의 날조된 선전과 허위에 염증을 앓고 있고 우리 민주학우들의 정의의 외침은 단 한 줄의 글귀도 민중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단 한 발자국의 학교 울을 넘어 울려 퍼지 지 못하니 탄식하며 좌절할 수 없음을 이 푸르고 높은 10월의 하늘과 더불어 맹세코자 한다.

.....

타율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 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인가?(중략)

독재지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 민주투쟁선언문

학우여!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자유 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부산대학교 민주학생 일동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글귀들은 이진걸의 〈민주선언문〉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선언문〉과 〈민주

투쟁선언문) 둘 다 유신정권을 타도되어야 할 '악의 표상' 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박 정권 18년의 도달점이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별개의 두 갈래로 진행되던 시위 준비가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이라는 하나의 행동지침으로 통일된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집결지가 한결같이 10시 도서관으로 결정된 것은 이진걸 쪽과 신재식 쪽이 공개 서클(동아리) '아카데미' 를 이끌던 김종세(수학 3)와 비공개 서클(동아리) '도깨비집' 을 이끌던 이호철을 만나 조직적 대중동원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김종세와 이호철이 시위 날짜와 장소를 하나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이진걸과 신재식의 10월 15일 교내시위 기도, 다음 날 정광민의 10월 16일 교내시위 주동까지 합하면 모두 세 갈래의 시위 계획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만나 하나의 큰 물길로 흘러야 할 역사의 필연이었다.

그러나 10월 15일 시위는 실패하였다. 이진걸은 10월 15일 시위의 실패 원인을 "당시 10시께 유인물을 뿌리면서 집결 시간을 10시로 잡은 것이었다" 라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이진걸이 '시위가 실패하였다' 라고 생각하고 구 정문으로 학교를 빠져나간 10시 반쯤에야,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11시쯤에는 대운동장 스탠드에서 교련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몰려와 도서관 앞 잔디밭과 계단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

로 술렁거렸다. 그들은 대학생들 동안 단 한 번도 스크림 대열을 짜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의 한 장면처럼 시위 주동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고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먹고 모여든 그들이었지만 정작 시위 주동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어쩔 줄을 몰랐다.

'부산대는 안 되나 보다.'

데모를 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도 12시가 되자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의 가슴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 메워졌다.

누리야, 아빠도 분노하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들과 대학 밑 시장통 돼지집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밤새 마셨다.

'역시 유신대학의 오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은 이따금씩 아빠를 '데모도 못하는 유신대학생' 이라고 놀리곤 하였다. 아빠는 그럴 때마다 강하게 머리를 흔들며 '그렇지 않다. 반드시 우리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날만은 정말 유신대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우리 중 몇몇은 울분으로 탁자를 쳤고 몇몇은 소리 내어 흐느끼기까지 하였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전문

모두가 자조적인 패배감으로 밤을 지새고 있을 때, '다시 싸
 워야 한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여 내
 일 또다시 투쟁해야 한다' 며 밤새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는
 학생이 또 한 명 있었다. 정광민(경제 2)이었다. 누리야, 아무래
 도 부마민주항쟁은 역사의 필연으로 일어나야 했나 보다.

4

항쟁의 폭발



1. 점화된 교내시위

누리야, 10월 15일의 시위가 불발로 끝나자 학생들은 바닥 모를 절망감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위계획을 짰다. 대략 4개의 그룹이 10·16 결행을 준비하였다. 법정대의 신재식 그룹, 언더 서클 ‘도깨비집’의 이호철·노재열 그룹, ‘아카데미’의 김종세 그룹, 상대 경제사학회의 정광민 그룹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을 터뜨린 정광민은 경제사학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키워왔다. 경제사학회는 경제학과 학생들의 자치적이며 공개적인 스터디 그룹으로서 2학년 복학생 박현호·여성모 등이 이끌고 있었다.

아빠는 16일 아침 10월 16일이 진정한 D-Day란 사실을 전달 받고 다시 한 번 시위를 꿈꾸며 일찌감치 도서관에 자리잡고 있었다.

10월 15일 정광민은 김종세 등을 만나 내일의 시위계획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였다. 김종세는 즉시 이호철을 만나 정광

민의 거사계획을 알리고, 인원동원계획을 협의하였다. 시위계획은 이랬다. 정광민이 상대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오면, 이호철, 김종세 등이 도서관 앞에 모아 놓은 인원과 합류시켜 시위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정광민은 <선언문>을 쓰고 친구 전도걸과 함께 자기집 다락방에서 유인물 등사에 들어가 뜬눈으로 밤을 밝히며 500여 장을 밀어냈다.

그리고 10월 16일 아침 10시가 가까워지자, 정광민은 인문사회관(지금의 제2사범관)으로 뛰어 들어갔다. 박준석과 엄태언(모두 경영 2)에게 경영학과를, 이성식(무역 2)을 만나서는 무역학과를 각각 부탁하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급우들인 경제학과 2학년들이 있는 306호 강의실로 가 <선언문>을 나눠 준 뒤 교단으로 올라가 주먹을 휘두르며 연설하였다.

청년학도여!(중략)

지금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곳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중략)

청년학도여!

부디 식어가는 정열, 잊혀져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 번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불태우세!(중략)

정광민은 <선언문>에서 고도성장정책으로 빚어진 부조리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사회의 모순 등을 통렬히 규탄한 뒤 마지막으로 모두 7개 항의 ‘폐정개혁안’ (정광민이 평소에 존경하던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에서 따온 것임)을 제시하였다.

1. 유신헌법 철폐
2.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3. 학원사찰 중지
4. 학도호국단 폐지
5. 언론 집회 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6. YH 사건에서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7. 전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

모든 효원인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정광민이 <선언문>을 읽고는 외쳤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 유신헌정권에 맞서 우리 모두 피흘려 투쟁합시다!”, “나가자!”

경제학과 40여 명의 급우들이 일제히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몰려 나갔다. 뒤질세라 경영, 무역, 회계학과 학생들이 최초의

시위 대열에 가세했고 도서관 앞에 왔을 때 도서관에서 기다리던 학생들과 합류해 시위대의 규모는 400~5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아침이슬’, ‘선구자’, ‘애국가’, ‘교가’, ‘기다리는 마음’ 등 절절한 가락이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을 뚫으며 이어갔다.

누리야, 아빠는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시위 대열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단다. 10월 16일 오전 학생들과 어깨를 걸고 ‘선구자’를 부르면서 지나간 어둠의 장막을 찢고 빛살 터지며 나오는 민주주의의 하늘을 보았다. 이 얼마나 오랫동안 설레며 기다렸던 민주주의 아침이란 말이던가. 자유란 필연의 인식이란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라는 말뜻도 알 수 있었어. 그래, 마침내 올 것이 온 거야.

그러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보수세력은 어느 곳에서나 있기 마련이란다. 도서관 앞에서 집회가 시작되자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이 몰려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된다. 강의실로 돌아가라”며 해산을 종용하였다. 한편 시위 주동 학생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탄 사복 경찰 두 명이 정광민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다. 이 광경을 본 학생들이 형사들을 에워싸고 못매를 가하며 떠밀었다. 두 형사는 3m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형사들의 정광민 체포 기도와 난투극은 우리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마침내 500여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유신철폐



***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을 돌고 있는 부산대학생들

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운동장을 향해 달려 나갔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자 500여 명의 시위대열은 순식간에 2천여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위대는 “독재타도!”, “유신철폐!”, “학원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정문으로 진출하였다. 신정문은 철용성처럼 굳게 잠겨 있었고 밖에는 어느새 시위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 기동 진압대가 대기하고 있어 밖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우리들은 경사면을 이용해 무거운 롤러가 달린 농구골대를 운동장에서 밀고 내려와 철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산을 종용하고 학생들이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독재타도!,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는 공방전을 몇 번 주고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닫혀 있던 철문이 열리더니 기동 진압대가

최루탄을 쏘면서 하얀 연기를 뿜어대는 페퍼포그 차를 앞세우고 교문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누리야, 페퍼포그란 직역하면 고춧가루 안개란 뜻으로 아주 매운 최루가스를 말한다. 페퍼포그 차는 그 매운 가스를 뿜어내는 차를 말한다. 일순간 처음으로 맞아본 최루가스에 당황한 시위 대열은 거미알처럼 흩어져 운동장과 본관 쪽으로 후퇴하였다. 매운 최루가스가 10월의 교정을 온통 회색빛으로 뒤덮었다. 하얀 최루탄 안개 속으로 시꺼먼 페퍼포그 차와 기동 진압대가 운동장과 본관 진입도로를 종횡무진 헤집고 다녔다.

누리야, 아빠는 난생 처음 맡아 보는 최루가스에 숨이 막힐 듯하였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나오고 폐가 따갑고 메스꺼워 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최루가스를 맡고 도망가지 못한 학생들은 경찰에게 붙들려 두들겨 맞고 짓밟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렇게 성급하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대학에 난입한 것은 잘못된 시위 진압방법이었다. 초동 대응의 미숙함이 더 큰 시위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그것은 마치 벌을 쫓으려다 벌집 전체를 건드려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런 무자비한 난입사태에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관망하던 학생들조차도 속속 시위 대열에 참가해 시위학생 수는 순식간에 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신정문을 사수하는 진압부대는 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제 교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다.

누리야, 학생들이 ‘독재타도!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독수리탑을 돌아 신정문으로 내리뛰기 시작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가 시민들과 함께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것이었다.

2. 민주화의 대장정

누리야, 우리들은 시내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운동장에서 뱅뱅 돌면서 아무리 “독재타도, 유신철폐!”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심지인 남포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 방어선을 뚫어야 하였다. 시위대는 시차를 두고 1진, 2진, 3진 세 갈래로 시내를 향해 진출하였다.

맨 먼저 구정문의 경찰 방어선을 뚫고 나간 1진 500여 명은 우측 주택가를 지나 온천장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운동장을 돌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던 학생들 1천여 명은 사대부고(지금의 항공우주공학관) 뒷담 쪽으로 빠져나가 부곡동 산업도로를 거쳐 온천장 방향으로 진출하여 주력군인 2진이 되었다.

2진이 진출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3진 700여 명이 사대부고

뒷담을 뛰어넘어 앞에 간 2진의 길을 따라 산업도로를 거쳐 온천장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누리야, 부산은 갈치처럼 남북으로 길게 누운 지형이고 북쪽 끝에 있는 부산대학은 남쪽 끝의 남포동까지 버스로 한 시간 거리이다. 하지만 시위대 1,2,3진은 남으로 남으로 목적지인 시내 중심가를 향해 머나먼 민주화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1,2,3진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로 합쳐졌다 갈라졌다 하면서 사직동을 지나 거제리까지 진출하였다. 특히 갈라진 2진의 일부를 흡수하여 주력시위대가 된 1진은 원예고교 → 금성사(지금의 럭키아파트) → 사직동 미남 로터리로 진출, 진압 부대를 만났으나 인근 공사장의 자갈을 던져 대패시킨 뒤 거제리 군부대 앞까지 과속지세로 나아갔다. 하지만 거제리 군부대 앞에서 철통 방어벽을 친 진압 부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주력시위대는 ‘2시 부산역 집결!’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해산하여 각자 버스를 타고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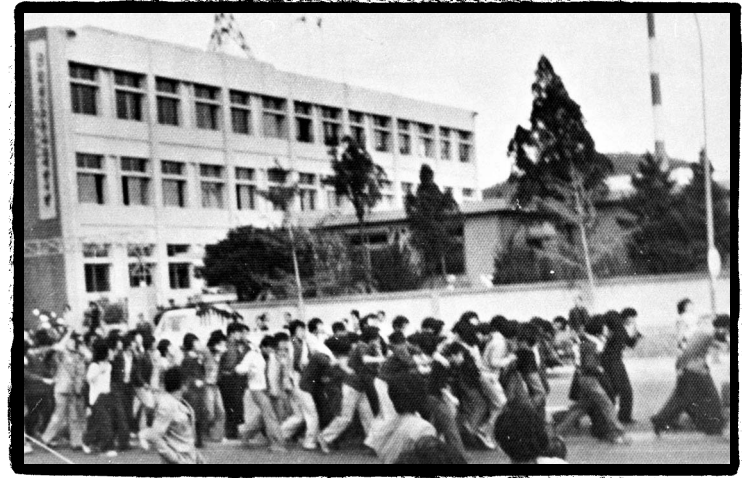
2진은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산업도로로 진출하여 고속버스나 택시의 승객, 행인들로부터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순조롭게 남으로 행진해 갔다. 그러나 온천입구 사거리를 지난 직후 강력한 진압부대와 부딪혀 많은 학생들이 구타당하고 연행되면서 대열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주류는 우측 금성사 방향으로 빠져 1진과 합류하였고 다른 일부는 온천천을 건너거나 뒤로 되돌아 나오다가 곧 뒤따라온 3진

과 합류하였다.

누리아, 아빠는 가방을 도서관에 놔둔 채 3진의 시위대열 속에서 뛰고 있었다. 1,2,3진 중 가장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던 3진 시위대는 산업도로를 타고 나오다 온천 입구 사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명륜동 쪽으로 나아갔다. 앞서 흩어진 2진의 일부를 그 과정에서 흡수하며 명륜동→동래 로터리→동래 경찰서→교대 입구까지는 무난히 진출하였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학원자유”와 같은 구호가 물결칠 때마다 거리를 지나는 기사나 승객 모두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거나 박수를 쳤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격려해 주었다. 점심도 먹지 않고 먼 거리를 뛰어온 학생 시위대들은 시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영해 주자 배고픈 줄도 모르고 더욱더 열심히 구호를 외치며 달려 나갔다.

3진은 행진 도중 내내 앞에서 뒤로 전달사항을 전해 주었다. 만약 경찰의 저지로 해산될 때는 “2시 시청 앞 집결”이라고. 그런데 시위대가 도착한 교육대학 앞은 시내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경찰은 그곳에서 400여 명의 진압부대를 배치해 놓고 강력한 공세로 나왔다. 전투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퍼부으며 뛰어나와 마구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갔다.

누리아, 경찰의 폭력은 몰락해 가는 유신독재 권력의 마지막 가학적인 몸부림이었다. 우리들은 미친 듯이 휘두르는 전경들



*** 동래경찰서 앞을 지나는 시위대

의 폭력으로 교대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시청 앞 집결!”을 외치며 해산하여 한 명 한 명 버스에 올라탔다. 한편 교내에 남아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2시 부산역 집결”이 전해졌다. 학생들은 학내 시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내 진출을 위하여 교문을 빠져나와 제각기 버스를 타기 시작하였다.

1,2,3진 및 교대 시위대의 시내 진출로 당시 시내 행 18번, 19번 등의 노선 버스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다. 차비를 받으려 하지 않는 안내양, 어깨를 치거나 손을 잡아 주는 승객, 격려의 말을 건네는 운전기사..... 버스 한 대 한 대가 모두 시위 버스였다. 버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차가 뒤쫓아오면 운전기사는 더 빨리 차를 몰았다.

부산대 교문의 제1방어선이 무너진 경찰은 서면을 제2방어선으로 잡고 학생 시위대의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일대 검문에 나섰다. 버스들을 세우고 학생 차림의 남녀는 무조건 끌어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내 서면에서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버스를 한 대씩 세운다면 부산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만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었다. 당시 서면 로터리는 하루 10만 대의 차량들이 오가는 가장 번잡한 부산의 교통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간선도로에는 버스 대열이 끝도 없이 늘어서서 부산 전체 도로를 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서면 방어선을 포기하고 물러나 부산역을 제3방어선으로 잡았다. 시경 당국은 학생들이 부산역에 집결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역 광장, 지하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병력을 다시 집중 배치하였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부산역에 도착한 버스를 모두 검문하여 학생들을 속속 연행해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 또한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다. 버스에 탄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 모든 학생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경찰 스스로가 버스를 서지 못하게 통과시켜 시청 쪽으로 보냈다. 경찰의 제3방어선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누리아, 그날 아빠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다. 뒤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오로

지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다.

더러운 침묵으로부터 이별
 치떨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별
 찢어지는 궁핍과 끝없는 압박으로부터 이별
 비겁한 용서와 무관심과
 물러서는 발걸음에서 이별
 길들여진 순응으로부터 이별
 귀 막고 아웅 눈 막고 아웅
 병어리 30년 눈 뜬 장님 30년에서 이별
 머뭇거리던 의심과 우유부단으로부터 이별
 진저리나는 온정으로부터
 가난과 기근의 아우성에서 이별
 자유여 평등이여 통일이여
 사무치는 통곡과 원한으로부터 이별
 — 최영철 「이별노래」 중에서

다행히 아빠는 별 부상 없이 1,2,3 방어선을 무사히 다 통과해 시청 역에 내릴 수 있었다. 지금은 차멀미를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차멀미가 워낙 심해서 부산대학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인 남포동만 나가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나 그날은 웬일인지 차멀미가 나지 않았다. 최루탄을 마셔 속이 그렇게 메스꺼

있는데도 오히려 청량감을 느낄 정도로 속이 후련하였다. 그리고 곧 도심지에서 벌어질 시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3. 도심지 항쟁폭발, 달리는 민주주의

누리야, 1979년 10월 16일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부르짖으며 달리기 시작한 부산대학교의 시위대는 온천장→명륜동→교대앞→거제리→서면을 거쳐 마침내 시청 앞까지 달려오는 폭발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가자, 2시 시청으로!”

우리들은 부산시의 행정 중심인 시청을 점거해서 독재타도의 깃발을 꽂고 싶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위를 도심지 여러 곳에서 도시게릴라식으로 진행했지만 시위대의 지향점은 늘 시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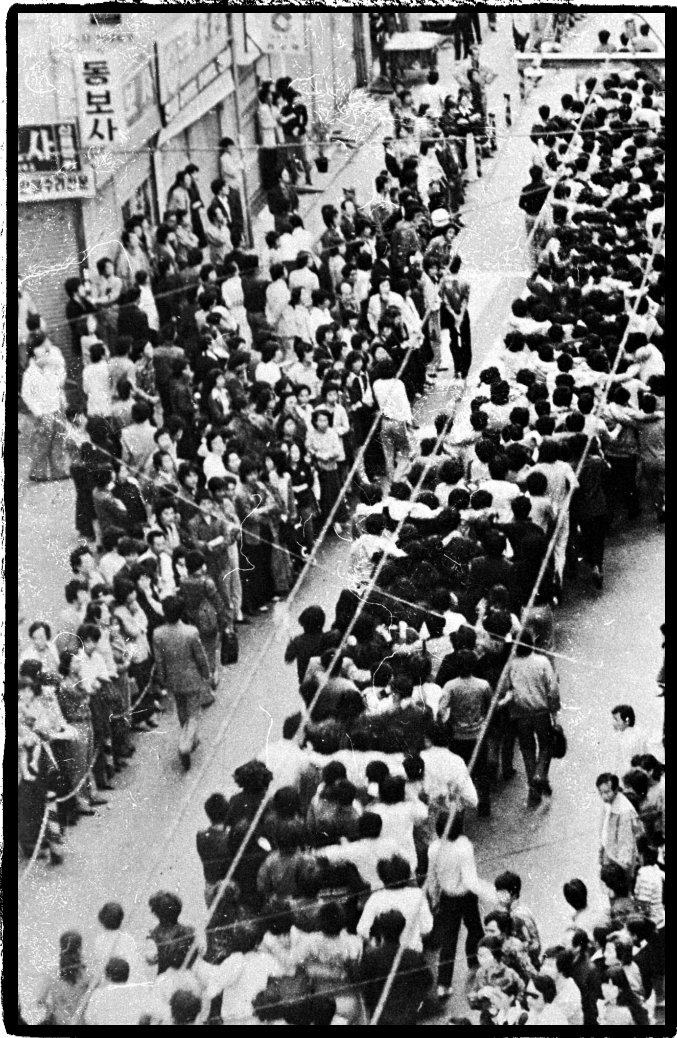
누리야, 우리 시위대가 시청을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역사에도 동학과 민란 등이 일어났을 때 주요 타격 대상은 관아와 같은 지방의 최고 행정 기관이라는 무의식적이지만 공통된 인식이 있었지. 7개월 뒤 5·18 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일관되게 도청을 향해 나아간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오후 1시 30분쯤 시청 앞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로 일순간 북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과는 달리 시청 앞은 좁아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 학생들은 즉석 토론회를 열었다. 지리적 여건상 시청 앞이 시위 집결지로는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시 부영극장 앞’에서 모여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오후 2시 부영극장 앞에는 시청 앞에서 내려 이동해 온 학생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골목마다 책가방을 든 학생들로 뒤덮였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이 흘렀다. 서너 명의 학생이 나서서 순서대로 이들을 길바닥에 앉혔다. 삼시간에 370여 명의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시위 대열을 형성하여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산의 도심지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위였다. 이때부터 부영극장 앞, 미화당백화점, 동아 데파트, 시청 앞 등 네 곳을 중심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일단 시위대열이 형성되자 주변에 흩어져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함께 대열을 만들었다. 합세한 이들은 부산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에 있는 대신동의 동아대학생들과 송도의 고려신학대생들이었다. 동아대와 고려신학대 학생들은 점심시간 때쯤 부산대생들의 시위 소식과 도심지 집결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시내로 달려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오직 유신독재정



*** 10월 16일 문천정을 지나고 있는 시위대

권을 타도하겠다는 생각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어깨를 걸고, 도심의 골목길을 뛰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시위대가 통과하는 곳마다 시민들의 맞장구치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맞다!”, “잘한다!”

우리 학생들은 절로 힘이 나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뛰었다. 하지만 도심지 거리마다 진을 치고 있는 기동경찰대는 학생들의 시위를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시위대의 머리 위로 최루탄을 쏘고는 곧바로 대열 속으로 뛰어들어 무차별 방망이 세례를 퍼부으며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끌고 갔다. 이때 학생들은 미로 같은 골목으로 흩어졌고 상가와 극장 안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흩어졌던 시위대는 경찰이 지나가면 다시 빠르게 대오를 갖췄다. 학생들은 경찰에 쫓기면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골목으로 숨어들었다가 경찰이 지나가면 다시 쏟아져 나와 경찰의 등 뒤에서 시위를 하여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시청을 향해〉

미화당백화점 앞길의 창선파출소 근처에서 2천~3천여 명의 시위대가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다.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학생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

작하였다. 이때 양 옆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한 무더기의 종이 태극기가 시위대의 머리 위로 뿌려졌다. 태극기는 순식간에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 ‘애국가’,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청을 향해 나갔다. 시청 앞으로 향한 400미터의 4차선 도로가 태극기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그리고는 “유신철폐!”, “언론자유!”를 외치며 그 물결이 시청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겹겹이 방어선을 치고 있던 진압경찰은 거칠고 완강하였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거나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최루가스를 퍼붓고는 곤봉을 마구 휘둘렀다. 학생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계속 전진했으나 경찰 기동대가 너무나 완강하게 반격해 와 시위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청동 미문화원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후퇴인 동시에 또한 시위대의 새로운 진출이었다. 우리들은 후퇴하면서 수십 개의 작은 시위대로 분산되어 경찰에 대항하였다. 국제시장, 대청동, 보수동 지역에서 한 번씩 정면 접전을 벌인 후 우리들은 다시 경찰의 등 뒤로 돌아와 공격을 가하였다. 바둑판 모양의 길들이 사통팔달로 이어진 이 지역에서 200~300명 규모로 나뉘어 흩어진 시위대는 수없는 갈래를 이루며 상가의 거리와 골목들을 누비고 다녔다. 시위는 지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고, 경찰의 전의는 땅에 떨어졌다.

시위의 범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날 4시에서 5시 사이 중부 경찰서 상황일지에 보고된 주요 시위대 동향은, 처음 2시경 광복동과 창선동, 남포동 일대에서 불붙고 국제시장, 신창동, 보수동, 대청동으로 번져가던 시위가 4시쯤을 전후해서는 동광동, 중앙동, 용두산공원, 동대신동 등지로도 계속 확산되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찰과 시위대 간에는 쫓고 쫓기는 공방전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학생들이 요리 조리 골목을 빠져 나가면, 경찰은 그 꼬리를 따라다니며 힘만 소모하였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놀라운 자생력으로 흩어졌다 결집되고 흩어졌다 또 결집되며 남포동, 광복동, 국제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휩쓸고 다녔다. 진압 경찰이 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시위대가 예기치 않은 골목에서 쏟아져 나오곤 하였다. 경찰 스스로 그들의 내부 문건에서 분석한 것처럼 ‘도시 게릴라식’ 시위가 펼쳐지고 있었다. 경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시위에 직접 나서지 않은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열띤 지지를 보냈다. 시위대의 곁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잘한다!”라며 응원하는 시민들로 가득하였다. 박수 치는 시민들의 호응 사이로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몰려다녔다. 학생 시위대가 뛰어다니는 분노의 대열이라면, 주위의 시민들은 박수를 치는 집단으로 결합되는 놀라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서 맘껏 뛰노는 것처럼 시위대는 시민의 물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시위대가 지나가는 골목마다, 다방이나 빌딩의 사무실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흔들어 환호하거나 힘찬 박수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었고, 경찰에겐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다. 건물 위에서는 추격하는 경찰에게 재떨이, 화분, 병 등을 내던져 진압을 방해하는가 하면, 부산데파트 옥상에선 시위대 위로 색종이 가루가 뿌려지기도 하였다. 가게의 상인들은 쫓기는 학생들을 얼른 가게 안으로 숨기고 셔터를 내려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고생이 많다. 밥은 먹었느냐?” 라며 음료수라도 마시라고 내놓는 것이었다. ‘떡자골목’의 노점상 아주머니들 역시 학생들에게 너도 나도 먹을 것을 건네주었다. 상인들은 자신이 팔던 것을, 일반 시민들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직접 사 온 김밥, 빵, 우유, 삶은 계란, 박카스, 음료수, 담배 등등을 줄 줄이 시위대에게 건네거나 던져 주었다.

누리야, 아침 한 끼만 먹고 온 부산을 뛰어다녔던 우리 학생들은 노점상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주는 음식들이 너무나 달고 꿀맛 같았다. 아빠는 남포동 거리의 가게 아저씨가 주는 카스테라 빵을 하나 얻어 먹었다. 한입에 녹아버리는 그 굉장한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노점 좌판이나 물건이 시위대에 밟혀 못 쓰게 망가져도 오히려 진압하는 경찰을 향해 욕을 퍼부

어댔다. 이미 경찰은 학생 시위대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였다. 시위의 양상은 단순한 학생 데모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민중항쟁’의 성격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고 도심지는 경찰을 무력화시킨 해방의 거리가 되었다.

1979년 10월 16일

마침내 우리의 불꽃은 치솟았다.

우리들의 불꽃은 바람에 필력이는 것발되어

거리와 골목

교정과 광장에서

민중의 손에 들려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민민과 진보적인 지식인

학생들의 손에서 거대한 불꽃으로 불기둥되어

하늘을 찌르며 타올랐다.

광복동과 남포동, 국제시장과 충무동

미문화원 근처

부산극장 주위는

시위대의 물결로 가득 넘쳤고

혁명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키며 해안을 뒤덮었다.

곳곳에서

군부독재 타도가 터져 나왔다.

우리의 절규는

우리들의 항거는

우리들의 혁명은

진압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 임수생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중에서

4.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누리야, 자갈치 바다는 노을로 잠기고 거리엔 서서히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낮에 도심지 거리를 누비고 다닌 학생들은 만족감과 함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점심과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북부의 끝 부산대학교에서부터 남부의 끝인 남포동까지 장장 30km를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일부 대학생들은 ‘이제 됐다. 할 만큼 하였다’ 며 시위를 마치고 돌아갈 궁리를 하였다.

경찰도 오후 5시쯤부터 광복동 일대의 시위 열기가 수그러들자 이제 데모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학생도 경찰도 모두 지쳐 있었다. 진압에 지친 경찰도 소수의 병력만 남겨둔 채 철수하고 있었다.

누리야, 그러나 시민이 주역이 된 본격적인 민중항쟁은 어둠

이 깔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위의 주도권은 학생들로부터 시민들에게로 넘어가고, 시위도 항쟁형 시위로 바뀌어 훨씬 격렬해졌다.

저녁 6시 어두워진 부영극장 앞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인이 음료수를 상자째 가지고 와서 주변에서 쉬고 있던 학생들에게 일일이 따 주었다. 조금 뒤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 뒤 구호를 외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골목 곳곳으로부터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쏟아져 나와 극장 앞에서 대열을 갖췄다. 300여 명의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연스럽게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시청으로 가는 중앙로 큰길로 나섰다.

16일의 야간시위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경찰이 미처 제지할 겨를도 없이 귀가길의 직장인과 노동자, 상인,接客업소의 종업원, 재수생, 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하여 시위대는 삼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 수천 명을 넘어 나중에는 5만여 인파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도심지 시위였다.

누리야, 시위대는 중앙로 큰길을 행진하며 시청을 향해 나아갔다. 아빠도 어깨를 걸고 시청을 향해 전진했는데 내 왼쪽 사람은 넥타이를 맨 시민이고 오른쪽 사람은 바로 네 또래의 머리를 박박 깎은 고등학생이었다. ‘高’자를 단 모자를 쓰고 교련복을 입은 이 학생은 한 손에 책가방을 들고 아빠랑 열심히 뛰어다니며 구호도 외쳤다.

누리야, 아빠는 그 고등학생과 어깨를 걸고 함께 뛰는 시위

와중에서도 생각하였다.

그래, 젊은이들의 피는 뜨겁고 순수하다. 구한말 의병운동에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너희들과 같은 젊은이들이었다. 일제시대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노다이사건과 해방 이후 4·19 혁명까지 다 너희들 중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다.

누리아, 거리를 뛰면서 노다이사건을 생각하였다. 노다이사건은 일제가 단말마적으로 조선인을 억압하던 1940년 11월 21, 22일 이틀간 부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일시위 사건이다. 당시 연말이면 조선인학교와 일본인학교가 같이 운동장에 모여 달리기, 장애물 넘기, 넓이 뛰기 등 국방운동경기 시합을 하였다. 이 경기에서 조선인학교가 일본인학교를 이기고 종합 우승을 했음에도 일본인 대좌 노다이 사령관은 일본인 학교가 이겼다고 편파 판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노다이의 노골적인 민족 차별에 조선인학교(현재 동래고와 부산상고) 학생들은 하기식 때 일본국가 대신 우리의 민요인 아리랑과 왜지나칭칭나네를 부르고 ‘천황폐하 만세!’ 대신 ‘제자이(단팔죽) 만세!’ 라고 빈정대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조선인 학생 1천여명은 운동장을 뛰쳐나와 “노다이를 죽여라”, “일본인을 죽여라!”며 부산 시가지로 행진하였다. 학생 시위대가 4열 종대로 스크럼을 짜고 반일구호를 외치며 시가지로 들어오자 부산시민들도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였다. 학생들은 대신동, 보수동, 부평동, 중앙동 등 도심 시가지를 휩쓸며 반일시위를

벌였고 어둠이 일자 학생 400여 명은 노다이 사령관의 관사를 습격하여 집을 박살내어 버렸다. 이 반일시위 사건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일본 헌병대가 총출동하여 시위대를 포위해서야 겨우 시위를 진압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타, 고문을 당한 뒤 학교에서는 정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 중 주동자로 분류된 8명은 구속되어 옥살이를 해야 하였다. 강포한 일제 말기의 억압을 뚫고 운동장에서 시가지로 폭발적인 시위양상을 보인 이 노다이사건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보여 준 대표적인 반일운동이었다.

누리아, 노다이사건의 발생과 진행 과정이 부마민주항쟁과 닮지 않았니?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은 일제시대 장교를 지낸 박정희와 유신체제라는 사실이 다를 뿐.

10월 16일 오후 6시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진 5만여 명의 시위 군중이 시청을 향해 행진을 했지만 시청 앞 경찰 방어선의 반격은 완강하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평평 쏘고 곤봉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사람들을 개처럼 잡아갔다. 이런 강력한 저지선에 시위대는 막혀 한 걸음 주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시위대는 중앙로를 점거하여 시청과 충무동 사이를 거대한 파도처럼 오가며 경찰 기동진압대와 공방전을 벌였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 철회!”

“김영삼”을 연호하는 구호가 나온 것은 시청 앞 시위가 처음이었다.

경찰 기동진압대는 갈수록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덤벼들었다. 시민과 학생들이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다.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우유 배달 소년이 잡혀 가고 시위대열을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할아버지도 잡혀 갔다.

오후 6시 20분 부영극장 앞에서 취재하던 TBC-TV 소속의 차량을 향해 시위대가 돌을 던졌다. 이것은 시위대가 처음으로 표적을 찾아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시위 첫대열을 이룰 때부터 “언론자유!”를 외쳤고, <민주투쟁선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의의 외침은 단 한 줄의 글귀도 민중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 관제 언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보도를 왜곡해 온 관제 언론 기관 다음의 표적은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파출소였다. 파출소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보다 민중의 도끼가 되어 힘없는 백성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해 왔다. 시민들은 가까이서 자기들을 억박 지르고 괴롭힌 파출소가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적으로 느꼈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은 수백 명씩 게릴라처럼 몰려다니며 파출소를 집중 공격하였다. 맨 먼저 8시 40분쯤 남포동 지하도 근처에 있던 500여 명의 시위 군중이 벽돌과 돌맹이로 남포파출소를 습격, 파괴해 버렸다. 통행금지시간이 앞당겨진 밤 10시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두꺼운 어둠을 뚫고
불기둥으로
솟아올랐다.



*** 인파와 최루가스로 뒤덮인 부산극장 부근, 현재 PIFF 거리

군중들은 부평파출소를 파괴했고, 10시 30분에는 보수파출소가, 10시 50분에는 중앙파출소가 파괴되고 새벽 1시까지 계속된 항쟁으로 이날 모두 11개의 파출소가 파괴되었고, 파출소에서 떼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도 불태워졌다.

경찰 차량도 시위 군중의 좋은 목표물이었다. 돌과 병을 손에 든 시위 군중들이 경찰차를 포위하자 경찰은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시위대는 각목으로 포니 순찰차의 유리를 박살낸 뒤 차를 뒤집어 엎고 성냥불을 그어 당겼다. “평”하는 폭음과 함께 불길

이 치솟았다. 뒤따라 오던 작전차도 마찬가지로 화염에 휩싸였다. 치솟아 오른 불길로 시청 앞, 남포동, 광복동 일대의 밤하늘이 흰하게 밝았다.

16일 시위의 부상자는 학생 5명, 일반 시민 10명, 경찰관 95명 등 모두 110명으로서, 그 중 18명은 중상, 92명은 경상자였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피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누리야, 이날 우리들은 밤 늦도록 시민들과 함께 해방의 거리를 달리면서 마치 돌아가신 4·19 애국선열들이 되살아와 함께 달리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18년간의 장기군사독재로 폭력과 군사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귀한 민주적 헌법과 법률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대신 쓰레기 같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라 국민들은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지내야 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학생과 시민은 두꺼운 어둠을 뚫고 불기둥으로 솟아올랐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었고 반드시 악을 응징해야 할 정의의 심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날이 오기만을 숨죽이며 흐느끼며 기다렸던가. 이날 학생과 시민이 한 몸으로 일어난 항쟁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던 것이다.

5. 항쟁의 확산

누리야, 10월 16일의 항쟁은 4·19 혁명 이래 처음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연행되어 갔다. 하지만 전날의 상황을 보도한 언론방송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TV에서는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뉴스와 시시껄렁한 쇼만 내보내고 있었고, 보도검열을 당한 신문들은 모두 침묵하였다.

시민들은 분노하였다. 국민들의 입과 눈을 봉쇄한 죄 하나만으로도 이 정권은 끝장나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무리 언론을 봉쇄하더라도 전날의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항쟁 소식은 시민들의 입과 입으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도시 내의 모든 가정과 공장, 사무실, 시장에서 어젯밤의 소식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10월 17일은 유신 선포 7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범일동 옛 조방 터에 위치한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각급 기관장과 공무원 등 2천500여 명이 모여 10월 유신 7주년 기념행사를 엄숙히 갖고 있었다. 그건 곧 무덤에 들어갈 유신체제를 기념하는 장례식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시내 곳곳에는 경찰과 진압 차량들이 진을 치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항쟁의 발생지였던 부산대학교는 임시휴교 조치로 교문을 닫아 버렸다. 휴교 공고가 나붙은 신·구 정문에는 완전무장을 한 기동대가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1천여 명의 학생들은 출입이 차단된 구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오전 10시 30분쯤, 이들은 “유신철폐”, “학원사수” 등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대열을 지어 금정초등학교 옆을 지나 식물원 방면으로 나아갔다. 식물원 입구 네거리를 지나던 시위대는 기동대의 급습을 받아 그 중 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각기 흩어져 어제처럼 다시 시내로 진출하였다.

10월 17일 주력 시위는 동아대에서 시작되었다. 어제 부산대학교의 시위 소식을 듣고 도심지 시위에 참가한 동아대학생들은 매우 상기되어 있었다. 우리도 주체적으로 시위를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캠퍼스 안에 널리 퍼졌다. 이날 첫 시위는 2교시 교련 수업을 거부한 법대생들이 시작하였다.

“교련철폐!”, “유신철폐!”

170~200명의 법대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교내를 도는 순간, 시위대는 순식간에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는 ‘애국가’, ‘우리의 소원’, ‘봉선화’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내로 진출하려 했으나 최루탄을 쏘며 들어오는 기동 타격대에 의해 흩어졌다. 교내에서 시위 중 학생들 사이에 “부영극장, 6시에 모이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전파되었다. 10월 17일 시내 항쟁에서는 동아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동아대학에서 17일 대규모 시위가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부터 대학생들이 물밑으로 독서회, 의식화 그룹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준비해 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중반부터 신종권이 유지해 오던 독서회는 1974년 ‘한국역사연구회’, 1975년 ‘생활철학연구회’, 1976년 ‘낙수회’, 1978년 ‘동아독서회’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학습조직으로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와 항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대 안에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다. 법대생인 김상배가 1975년 필화사건으로 제적된 적이 있는 만큼 법대생들은 동문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시국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곤 하였다. 이런 법대의 분위기가 10월 17일 동아대 시위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

1979년 들어 새로운 학습조직인 지하 서클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움직임은 두 갈래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황주호, 백인호, 최형욱 등 소위 ‘5인방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서울에서 내려온 한헌석에게 체계적인 학습을 받으며 동아대 학생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는 시항문학회를 중심으로 모인 변재관 그룹이었다. 변재관 그룹은 1979년 부산대학교 고호석(부림사건 관련자)으로부터 학습을 받고 새로운 조직을 꾸리고 있었다.

누리아, 부마항쟁을 우연의 산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앞에서도 말했다. 10월 17일 동아대 시위사건도 마찬가지야.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는 땅 밑의 흐름이 있었기에 부마항쟁에



... 동아대 정문을 봉쇄한 계엄군

서 동아대학생들의 강렬한 시위가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8·15 해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는 시각에만 매달린다면 일제 36년간 우리 선열들이 줄기차게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것은 한낱 헛수고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결코 되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주어와 주체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렴.

10월 17일 정오부터 대학생들이 광복동 등지의 다방과 음식점, 술집 등에 자리잡기 시작하자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도’ 하

기 위해 함께 나와 시내 중심가는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 오후 3시쯤, 부산 시청에서는 내무부 장관 구자춘이 내려와 기자 회견을 열고 있었다. 전날 시위 진압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부산시경 국장을 해임시킨 그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병력을 증강시켜 어떤 시위도 엄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런 행위는 이미 절벽으로 내려가는 마차 안에서 문단속을 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저녁 6시, 국기 강하식이 시작되었다. 애국가 방송이 끝날 무렵 부영극장 주위의 군중들 속에서 다시 육성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를 계기로 몇 갈래의 시위대가 형성되어 남포동 및 자갈치시장 골목길을 누비며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6시 30분, 남포동에선 “모여라!” 하는 신호와 함께 400여 명의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대를 형성하였다.

누리야, 우리 시위대들은 대열을 만들어 나갈 때 항상 애국가를 먼저 불렀단다. 그것은 마치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시민들이 ‘라 마르세즈’를 부르며 진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일 거야. 라 마르세즈가 프랑스 시민들을 하나로 만들어 두려움을 떨치고 진군하게 했던 것처럼 애국가도 우릴 하나로 만들어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게 했지. 그리고 우리 시위대는 불순분자가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라는 걸 보여 주고도 싶었던 거야. 나중에 경찰은 고백했어.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며 몰려올 때 가장 겁이 났었노라고 말이야.

애국가를 부르며 형성된 시위대는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두 갈래로 갈라져 충무동 쪽과 국제시장 쪽으로 각각 행진해 나갔다. 다시 16일 밤의 항쟁과 꼭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 대열이 형성되고 경찰과의 맹렬한 접전이 벌어졌다. 200~300명 규모의 시위대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줄달음치며 중구, 서구, 동구의 거리로 확산되어 갔다. 갈라진 시위대가 합쳐져 붙어나고 또 다시 갈라지는 식으로 시위는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시위대 없는 거리가 없었고 애국가와 구호가 울려 퍼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어제의 패배를 설욕하듯 무차별로 최루탄을 퍼붓거나 방망이를 휘갈겼지만, 시민들은 시위대를 뒤쫓는 경찰들의 머리 위로 연탄재, 화분, 빈병 등을 던져 시위대를 도왔다. 오늘도 경찰은 시민 모두를 상대로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만 하였다.

수십 갈래의 시위대가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 기관을 공격하였다. 처음 남포동에서 충무동 쪽을 향해 진출하던 시위대는 방향을 틀어 다시 시청 쪽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시청 앞 경찰과 대격전을 벌인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부산역 방면과 운동장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운동장 방면의 시위대는 7시 25분경 충무파출소를 격파하고 서부경찰서에 투석한 뒤 동대신파출소를 또다시 파괴하면서 서구지역을 휩쓸었다.

부산역 방면의 시위대는 8시 20분경 초량1파출소를 습격하고 부산진역 쪽으로 계속 북상하였다. 1천여 명으로 붙어난 시위대는 KBS(당시 초량 고관 입구 소재)를 타격하기 위해 진격했으나, 수십 대의 무장한 군 트럭이 시위대의 중앙을 가르며 덮쳐와 KBS 공격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다시 2천500여 명의 대규모 대열로 집결한 시위대는 부산일보와 MBC(둘 다 당시 중앙동에 소재)에 투석 공격을 퍼부은 후 시청 앞으로 나아가 경찰기동대와 대대적인 격돌을 벌였다.

누리야, 시위대들이 어제와는 달리 방송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전날 전 시민이 항쟁한 사상 초유의 시위가 있었음에도 방송 언론들은 부산의 상황은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쇼 프로그램이나 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으로 향해 구름처럼 몰려들던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가스와 곤봉 세례로 흩어져 도망치자 경찰은 골목 구석까지 끝까지 쫓아가 안면에 가스를 뿜어대며 구타를 가하였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돌, 병, 가로수 버팀목, 공사장의 각목 등을 무기로 끈질기게 대항하였다. 경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3천400여 명의 대병력을 투입했으나 항쟁을 진압하지 못하였다. 급기야 밤 10시께는 사령관 정상만 소장이 이끌고 온 육군 2관구(현 53사단) 소속 지역부대가 투입되기도 했으나 그것도 성난 시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대청동 미문화원 앞에서는 2관구 사령관의 지프차와 호위차가 습격당하기까지 하였다.

밤 9시쯤, 시내 중심가에선 시위대에 의해 중부세무서와 서대신3동 사무소가 습격을 받았다. 또 초저녁 시간대에 국제시장 쪽으로 행진해 가던 시위대도 이 무렵 국제시장에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와 영선고개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메리놀 병원 반대편의 제2 대청파출소를 파괴하고 방범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새벽 1시30분까지 계속된 이날의 항쟁에서도 모두 21개소의 파출소가 파손되거나 불탔으며, 경찰 차량 6대 전소 12대 파손, 경남도청(지금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중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일부 동사무소 등이 파괴되고 투석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 및 관공서와 언론기관들의 이러한 피격 상황은 전날에 비하여 훨씬 확대된 것이었다. 당시 시청 옆에 있던 국제신문사가 시청 방어 병력 덕분에 겨우 수난을 면하였고, 유신독재하에서도 양심적인 방송을 해 왔던 기독교방송국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중구, 서구, 동구 지역에 있던 거의 모든 언론사와 공공건물이 파출소와 함께 이날 시위대의 공격 목표로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6. 최후의 계엄령

10월 16, 17일 이틀간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박정권은 18일 밤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

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 유신체제 등장 7년 만에 다시 발동된 비상계엄령이었다. 거리마다 계엄포고문과 함께 박정희의 담화문이 나붙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유신헌정은 거듭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선택 정립된 것이며 지난 7년 동안의 국민적 실천과 체험을 통하여 국난을 극복하며 민족중흥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과 정당성이 여실히 입증된 바 있으며(중략) 이 길만이 우리 3천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중략)”

담화문 내용은 전혀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의 자기변명과 사실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마치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지한 것인 양 떠들고 있었다. 군사정권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상계엄령을 단골로 내놓아 독재정권을 교묘하게 지켜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풀었다.

계엄령에 따라 대학의 휴교, 집회와 시위 등 모든 단체 활동 금지, 언론 출판의 검열, 사업장 이탈 및 태업의 금지, 야간 통행 금지의 연장, 영장 없는 체포 등등을 알리는 포고문이 전 시내에 나붙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이 각 대학교와 관공서에 일제히 배치되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의 운동장엔 군인들이 캠프

프를 치고 정문은 착검한 무장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학교가 온통 군인들 세상이었다.

누리야, 아빠는 학과 일로 한 번씩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학교 앞에 세워 놓은 탱크와 장갑차를 지나 총검을 든 계엄군 보초에게 용무를 이야기하고 가방을 수색당한 뒤에야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군인들이 군용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텐트 주변에 도랑을 파 운동장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군인들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무장한 계엄군을 기득 실은 군 트럭들은 장갑차를 앞세운 채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사이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일종의 심리전이였다. 그러나 계엄군의 '작전' 이 심리전으로만 그치지지는 않았다. 여단장 박희도 준장이 이끌고 온 한 공수부대는 얼굴에 시꺼먼 위장 크림을 칠한 채 참나무로 깎아 만든 몽둥이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길을 건다가 그들과 마주친 20대 청년들은 그들이 이유도 없이 휘두르는 무차별 구타를 참아 내야만 하였다. 전병진(당시 31세, 당감동 253번지 거주)은 서면 한독병원 앞을 지나다가 '건방지다' 는 이유로 공수부대 장교가 휘두른 M16 소총의 개머리판에 맞아 뇌수술까지 받아야 하였다. 당시 부산의 각 언론기관에는 그같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행을 고발하는 제보가 빗발쳤으나 언론사들은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 계엄령 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

지난 이틀간 쏘아댄 최루가스의 매운 맛으로 얼룩졌던 도심의 공기가 이날 저녁부터 내린 비로 씻겨 내리고 있었다. 시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의 탱크와 장갑차가 포진하여 살벌한 분위기로 위협하고 있었다. 그 짓눌린 분위기를 뚫고 또다시 시위가 터져 나왔다. 빗속의 어둠이 깔린 18일 저녁 8시경, 남포동 동명극장 앞에 모여 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300여 명이 집결하여 구호를 외쳤다. “계엄철폐!”, “독재타도!” 시위대는 스크림을 짜고 남포과출소로 진출하여 돌 세례를 퍼부었다. 그들이 남포동으로 나오자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담하였다. 2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시청을 향해 전진하였다. 이날은 특히 “김영삼 제명철회!”의 구호가 다른 때보다 비교적 많이 나오기도 하였다. 전진하던 2천여 명 시위

대의 전면에다 시청을 방어하던 공수부대가 최루탄 공세를 가하며 대검을 쫓은 총을 앞세우고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은 차렷 총 자세로 시위대를 헤집으며 달려든 뒤 닥치는 대로 총을 휘둘렀다. 그들의 개머리판에 무수한 시민들이 부상당하였다. 시위대는 비가 내리는 남포동, 광복동 거리로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들의 항쟁을 누가 짓밟는가.

우리들의 죽음을 누가 헛되이 짓몽개는가.

우리들의 항쟁은

우리들의 죽음은

깨꽃보다 더한 짙은 피로

강력한 빛을 발하는 혁명으로 직결돼

역사의 장에 획을 그었지만

군부는 총칼을 휘둘러

깨꽃혁명을 짓이겨 버렸다.

— 임수생 「거대한 불꽃 부마 민주 항쟁」 중에서

부산 시내는 다시금 강요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연 사흘에 걸친 부산 지역의 민주항쟁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 계엄령은 박정희가 내린 마지막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누리야, 이날 부산에서 지펴진 항쟁의 불길은 이미 이웃 도시 마산으로 확산되어 맹렬히 타고르고 있던 중이었다.

5

항쟁의 확산



1. 되돌아 온 마산 3·15 의거 정신

부산의 항쟁소식이 1960년 4·19 혁명을 점화시킨 마산에 전해진 것은 17일이었다. 부산에서 경남대학으로 통학하는 몇몇 학생들이 부산 시위의 소식을 전하자 학내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17일 밤에는 경남대학 내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는 이윤도가 도서관에서 술에 취한 채 애국가와 선구자를 부르며 단독으로 유신선포 7주년 기념식(?)을 하는 해프닝 같은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생들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이윤도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됨을 느꼈다.

또 하나는 이진욱(법학과 1)이 밤새 대학 게시판 곳곳에 ‘민주대학생혈맹’ 명의의 격문을 붙여 놓은 것이다.

“청년학도여 일어나라, 거리마다 우리의 맑은 피를 뿌리자!”

다음 날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를 알아차린 학교당국은 18일 오후 2시 18분 교내방송을 통해 서둘러 휴교령을 발표하였다.

“오늘부터 학교 당국의 사정에 의해 무기한 휴교합니다. 각 강의실에 있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귀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휴교령을 알리는 방송이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강의실에서 나온 1천5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 모여 휴교령은 부당하다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10월 22일 예정으로 교내 시위를 준비하고 있던 정인권,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은 지금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고 거사일을 앞당기기로 하였다.

오후 2시 30분께 정인권은 1천5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즉석 연설을 하였다.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 학우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 마산 3·15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우리가 아무리 자유 진리에 대한 이상이 높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3·15 의거정신을 잊었는가 나가자!”

비록 선언문은 없었지만 훌륭한 선동 연설이었고 학생들은 “웁소!”, “나가자!” 라고 외치며 교문을 향해 내려갔다. 벌써 시위 소식을 들은 경찰 병력이 교문 밖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까지 교문 돌파를 시도하던 시위대는 오후 5시 ‘3·15 탑’ 앞에 모이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교문을 빠져 나가 마침내 도심지에서 마산항쟁의 불길을 당기게 된다.

누리야, 경남대학은 독자적으로 10월 22일 예정으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지.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니? 이미 유신체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이 썩은 문짝을 갈아치울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산대학과 동아대학에서 보았듯이 항쟁이 발생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항쟁 주체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항쟁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경남대학의 경우, 이러한 물밑 작업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1977년 마산 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마산에 내려와 사회과학 소모임을 꾸렸고 그 모임에 경남대학생인 정성기, 최청호, 전재영, 이윤도 등이 함께 참가하였다.

1978년에는 이들 소모임 회원들이 경남대 내에서는 최초의 이념 동아리인 '사회과학연구회'를 결성해 학습 조직을 만들었고 대학 밖에서는 '경남 양서보급회'를 만들어 3·15 의거 관련 자료와 서적 등을 수집하여 3·15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지역 운동을 하고 있었다. 10·18 마산항쟁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한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 이윤도, 최청호 등이 모두 사회과학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오후 5시 집결지인 '3·15 탑' 주변에는 이미 시위군중 2천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그들은 3·15 영령들에게 비장한 묵념을 한 뒤 "독재 타도!", "박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에 들어간 뒤, 날이 어두워지자 시내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같은 시간 창동 네거리에 모인 200여 명의 경남대와 마산대 대학생, 시민들은 독자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대광예식장 → 남성동 파출소 → 불종거리 → 오동동을 거쳐 수출자유지역 쪽으로 나아가면서 퇴근하는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자들을 흡수하였다. 3·15 탑 시위대도 시내에 도착해 1만여 시위 군중이 마산시의 중심지인 창동, 부림시장, 오동동, 불종거리 일대를 누비면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경찰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경찰 기동대는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 군중을 해산하였다. 처음 경찰은 시위 진압이 미숙하고 진압 태도도 온건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난폭해져 길 가던 사람을 방망이로 후려쳐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가 하면, 시위 군중들이 던진 돌을 되던져 큰 부상을 입게 만들었다.

시위대들도 이에 맞서 각목을 휘두르고 자갈돌과 콜라병을 집어 던졌으며 수레에 담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향해 밀었다.

시위대가 민중 봉기로 가는 길목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오후 6시 30분 마산의 거리에 어둠이 몰려오자 시위대는 부산과는 달리 경찰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상가와 사무실을 향해 "불꺼! 불꺼!"라고 외쳤다. 불을 끄지 않는 상점과 건물에도 돌을 던져 박살을 내었다. 헤드라이트를 켜 차량에도 돌을 던져 헤드라이트를 박살냈다. 마산의 중심가는 삼시간에 암흑천지



*** 시위대의 습격으로 파괴된 마산 산호파출소

로 변했고 시위 군중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대담하고 자유롭게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시위대는 오후 6시 55분 남성동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다 돌연 마산의 공화당 국회의원 박종규 의원 집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들은 첫 물리적 공격목표를 박종규 의원의 2층 호화주택으로 정하였다. 군중들은 분노의 돌팔매질을 했고 집은 박살이 나 버렸다. 3·15 의거 당시 시위 군중이 허윤수 자유당 국회의원 집을 파괴한 것처럼 권력의 실세였던 박종규 의원 집을 타격한 것은 10·18 마산민중항쟁이 3·15 의거 정신을 잇고 있다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날 밤 마산항쟁의 시위대열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첫 갈래는 가장 먼저 진출한 대열로 공화당

사, 양덕파출소 방면이었다. 이들은 마산 공화당사에 돌을 던지고 양덕파출소를 파괴하였다. 둘째 갈래 시위대는 오동동파출소를 파괴한 뒤 불종거리로 되돌아왔으며 일부는 북마산파출소로 진격하였다. 시위의 마지막 갈래는 앞의 두 방면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 3·15 의거탑을 지나 마산경찰서로 향하였다. 이렇게 크게 세 방면으로 나누어진 시위대는 새로운 군중들을 흡수해 가며 공공건물을 공격하였다.

어둠을 이용한 공격력은 대단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파출소에 돌맹이를 던져 파괴하고 독재자의 사진과 파출소 바닥에 석유를 끼얹어 방화하였다. 파출소가 정의롭게 봉사행정을 하는 대신 시민을 억압하는 앞잡이 노릇을 해 온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의 보복을 가한 것이다. 파출소를 파괴 방화한 사람들 중에는 당국의 발표대로 깡패, 불량배로 불리던 사람도 간혹 섞여 있었다. 그러나 시위군중 대부분은 수출자유지역의 근로자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착하고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시위 군중이 외친 구호에는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희는 물러가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김영삼 만세!”라는 구호도 나왔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이 너무 큰 만큼 시위도 과격해졌다. 이 날 밤 마산시민들은 18년 동안 폭력과 억압을 가해 온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혁명적 본능과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드러내었다.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회원동파출소, 양덕파출소, 산호파출소, 북마산파출소, 자산동파출소, 남성동파출소 등이 차례로 파괴되거나 방화되었다. 시청과 세무서, 경찰서와 방송국도 공격의 대상이었다. 마산시위가 부산에 비해 더욱 격렬해진 것은 도심지 거리가 부산에 비해 더 어두웠고, 거리에 무기화할 수 있는 돌과 각목 등이 더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산항쟁이 부산항쟁과는 다른 것은 부유층에 대한 증오의 일단을 보인 것이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상징물들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파괴하고 상들리에가 켜진 고급상가와 고급주택에 돌을 던졌던 것이다.

누리야, 전태일의 분신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며 기계처럼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인간다운 대접은커녕 동일방직 여공처럼 회사 측으로부터 똥물을 뒤집어쓰거나 YH 여공 김정숙처럼 폭력 앞에 짓이겨져 죽임을 당하였다. 마산수출자유공단의 노동자들과 회사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은 가진 자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밤 10시 45분 인근 창원 39사단 병력 1개 대대가 15대의 트럭에 분승, 시위군중을 헤집으며 한일합성섬유주식회사에 집결한 뒤 마산의 공공건물에 배치되었고 마산경찰서에는 250명의 병력이 장갑차 3대와 6대의 트럭을 타고 와 방어선을 만들었다. 아직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내려진 상황이 아닌데도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어 총칼을 번뜩이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었다.

누리야, 이처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늘 법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처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을 때부터 그러했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계엄령을 내려 군대의 총칼로 진압을 해 온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 유신 말기의 박정권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국민의 군대를 빼내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도 합법성도 못 갖춘 깡패정권의 본색인 것이다.

하지만 마산에서는 군인이 투입되고서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밤늦게 비가 내리는데도 시위대는 불종거리와 마산역에서 경찰과 공방전을 계속했고 19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시위대는 내일 저녁 7시 시내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2. 마산이 일어서면 나라가 바뀐다

누리야, 10월 19일 마산의 시위는 군인들의 무력 시위로 시작되었다. 마산에는 어떠한 시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군인들은 장갑차와 탱크를 끌고 나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가지를 살벌하게 누비고 다녔다. 총에 대검을 꽂은 군인들은 시청, 경찰서, 방송국 등 곳곳마다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이들 군인들은 창원 39사단 1개 대대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부산지역에서 파견된 공수부대 1개 여단이였다.

그러나 살벌한 군인들의 무력 시위도 민중들의 뜨거운 항쟁을 잠재우지 못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시내 중심가로 모여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중심가의 상가와 유흥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고 거리는 다시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밤 8시경 창동 네거리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모이자!”라고 외치며 뛰어나갔고 순식간에 시위대열은 500~600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불종거리 어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의 도움을 받은 경찰은 어제와 다르게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발사하며 앞으로 돌격하여 곤봉으로 후려치며 격렬한 난투극을 벌여 시위자를 연행해 갔다.

시위대는 “관제 언론인 MBC를 때려 부수자!”며 남성동 극동예식장 앞을 지나 분수 로타리로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경찰

병력은 시위대의 공격로를 예상하고 MBC로 가는 도로를 삼엄하게 막고 있었다. 시위 군중들은 투석전을 벌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MBC 방송국 앞까지 나아가 다시 돌을 던져 건물 3층까지의 유리창을 모두 박살내었다. 마산 시민을 불순분자와 폭도로 매도한 방송에 대한 분노의 돌팔매였다.

시위대는 MBC 앞뿐만 아니라 북마산에도 600여 명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며 공방전을 벌였고, 마산역, 산복도로, 오동동 등지에서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날 시위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자와 실업자, 고교생들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합세, 전형적인 민중항쟁의 모습을 보였다.

자유의 불이 타올랐다

항쟁의 불길은

잘 마른 장작에 불붙듯 마산으로 번져

계엄령의 총칼을 불태웠다

10.18일 경남대 반정부 성토대회 뒤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계엄령을 반대한다

민주의 거리에서 독재자의 사진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 폭압의 역사가 쓰러지고 있었다

— 부산지역 대학생 글패연합 「조선의 맥박」 중에서

누리아, 시위대는 새벽 2시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다음 날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시위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박정권은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위수사령관에 조옥식 소장을 임명해 탱크를 앞세운 공수부대를 투입해 강경 무력진압작전을 폈다. 말기적 증상으로 나타난 유신 정권의 단말마적 폭력성에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싸운 5일간의 부마항쟁은 강요된 침묵으로 들어간다.

10월 28일 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부산 1천58명, 마산 505명 등 모두 1천563명을 연행한 다음, 이 가운데서 부산 43명, 마산 46명 등 8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이날 군법회의에서는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80년 3월 6일 항소심에서 5명이 최종적으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 황창문(26·노동), 옥상열(경남공고 3년), 황상윤(24·공원), 노승일(27·서점경영), 김영일(24·앰네스티 부산지부 간사) 등이었다.

누리아, 박정희 독재정권 타도를 내걸었던 부마항쟁의 근원적인 힘은 군인들에 의해 결코 진압되지 않았다. 마산 시민들은

믿고 있었다. 마산이 일어서면 나라가 바뀐다는 것을. 이승만 독재정권은 마산에서 3·15 의거로 시작되어 4·19 혁명의 불길 이 붙어 무너졌던 것이다. 열흘 뒤 발생한 드라마 같은 10·26 사건으로 이어져 저 거대한 독재와 폭력의 화신인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게 된다.

3.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다

누리아, 부마항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그 시기에 권력 서열 2위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부산으로 내려와 항쟁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전 시민이 한 몸이 되어 “독재 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는 항쟁의 위력을 보는 순간,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도 두려움을 느끼며 전율했을 것이다. 이런 대규모 항쟁이 수도 서울로 파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큰 희생이 따르는 참혹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10월 26일 궁정동 비밀 안가에서 만찬 도중 김재규는 부마항쟁의 경과를 박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였



*** 박정희 대통령 저격 장면을 재연하고 있는 김재규

다. 동석했던 차지철 경호실장은 한 술 더 떠서 “각하, 우리가 데모대원 1, 2천 명 죽인다고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면 제가 탱크로 밀어 버리겠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이에 격분한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이라며 권총을 발사해 살해하고 잇달아 박정희 대통령도 살해하였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쏜 동기는 무어라 단정할 수 없다. 치밀한

사전 계획설, 우발적인 동기 등 암살 동기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사건 발발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김재규를 질책하고 경호실장 차지철의 강경 노선을 채택하였다. 중앙정보부장 경질설 등 위기감에 몰린 김재규가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암살하였다는 설이다.

다음은 김재규의 배후에 미국의 음모가 있다는 설이다. 박정희 정권은 오랜 집권으로 통치능력이 떨어지는데다 박정권이 카터의 인권 외교에 반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자 미국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를 움직여 박정희를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누리야, 그러나 어떤 설보다 김재규의 결단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부마항쟁’의 힘이었던다. 부마항쟁은 썩어가는 권력내부에 강한 타격을 가하여 권력이 내부 균열을 일으켜 스스로 붕괴토록 한 것이다. 궁정동의 총소리, 좀 드라마 같지만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아 유신의 종식을 가져온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이날 역사가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던다. 만약 궁정동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럴듯한 답은 그래도 유신체제는 종식되었을 거라는 거야. 부산과 마산에서 불길이 솟은 부마항쟁이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민중의 힘에 의해 유신체제

의 종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그러나 김재규는 항쟁의 확산이 두려웠다. 민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시민과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정동 만찬장의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발포도 서슴지 않는 강경 진압 노선으로 나갈 게 틀림없이 뻔하게 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김재규는 그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김재규의 두려움은 기우가 아니었음이 10·26 사건 이후 7개월이 채 못 되어 일어난 핏빛 광주민중항쟁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김재규는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에서 말하였다.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누리아, 그 시간 부마항쟁 주동자로 몰린 정광민, 이진걸 등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보안대 고문실에 끌려들어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이진걸의 경우는 빨갱이로 조작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잡아서 땅바닥에 던지기는 예사이고 온몸을 군홧발로 짓밟고 각목으로 구타하여 가짓빛으로 만들었다. 정광민은 온몸을 군홧발에 짓밟힌 뒤 코로 고춧가루와 물을 먹이는 물고문을 받았는데 실신하여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다시 고문당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했다. 그들은 오로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불타는 순수한 대학생들에게 마지막 단말마적 고문과 군사

폭력을 가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박정희 군사정권이 백성들에게 가한 마지막 고문과 폭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26일 얼마 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사관들은 모든 고문을 중지하고 정광민, 이진걸 등을 헌병대로 보내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잔인한 폭력과 고문을 멈추지 않았던 폭력적 군사정권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누리에게—
민주주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누리야, 부마항쟁이 일어난 뒤 2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아빠는 그 사건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구나. 물론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너에겐 부마항쟁이 생소하기도 할 것이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해.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 부마항쟁은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주 좋은 일임을.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과거는 죽어 있지 않고 현재에도 살아 있음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역사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겠지.

누리야, 처음 부마항쟁은 불순분자들의 소요사태, 폭도들의 소요사건, 부마사태 등으로 불려졌지. 사건 가담자들은 모두 잡혀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범죄자로 취급되었어.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부마 민주항쟁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을 했고 그때 감옥에 갇던 사람들은 당당히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 명예회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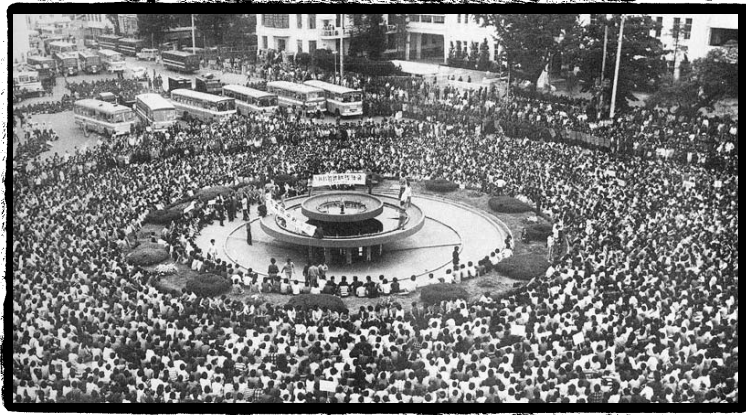
누리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마항쟁에 담긴 뜻을 간

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박정희 독재정권은 국민을 총칼로 고문하고 협박하여 성립한 후진적이고 매우 부도덕한 악의 정권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발독재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얼마간의 공이 있다 하나 18년간 군사독재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과 고문, 인권과 언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헌법의 유린,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박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방해,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드리운 군사독재정치의 망령까지 생각하면 공은 과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불법과 폭력에만 의지해서 정국을 운영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정권이었다. 부마항쟁은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한 권력을 끝장낸 도덕적 민주화운동이었다.

둘째로, 부마항쟁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과 시민이 하나로 뭉쳐 싸운 민주항쟁이었다는 점이다. 지배 권력에 강력하게 타격을 가한 민주항쟁의 역사는 3·1 운동, 4·19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력한 독재 권력과 싸울 때에는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싸워야 한다는 민주항쟁의 전범이 부마항쟁을 통해 정립되었다. 부마항쟁의 민주항쟁적 성격은 7개월 뒤에 일어나는 1980년 5·18 민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에도 이어져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민주화 투쟁의 원형이 된다.

셋째로 부마항쟁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았던 철



*** 시민궐기대회,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앞 (5·18민중항쟁)

권 유신정권에 결정타를 가한 혁명적 운동이었다. 부마항쟁은 18년 동안 쌓아올린 견고한 독재 권력의 철옹성이 붕괴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사실 박정희 독재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역사의 필연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과연 저 세력이 무너질까 반신반의하면서 힘들게 싸워 나갔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독재정권에 대해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이후 항쟁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정권을 전복시킬 기세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세가 정권 내 권력암투를 자극하여 마침내 10·26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박정희 유신체제의 실질적 종식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누리야, 부마항쟁이 미완의 혁명이었음도 기억해 두자. 자체의 힘으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김재규의 저격이라는 간접적인 힘을 빌어 유신체제의 종식을 가져왔지. 그 결과 박정희 군사독재의 망령인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이

12·12 쿠데타로 다시 이마를 내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말았던 것이야. 이것이 부마항쟁이 안고 있던 한계점이지. 하지만 부마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되어 싸우는 전 민중적 항쟁이라는 투쟁방법을 보여줘 장차 일어날 5·18 민중항쟁과 1980년대 운동에 그 극복방법도 제시해 준 셈이 되었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중항쟁의 경우, 희생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그 항쟁의 발생과 저항과정이 부마항쟁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이 두 항쟁은 아무리 강한 독재 권력이라도 학생과 시민이 단결해서 싸우면 잠시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누리야, 아빠는 부마항쟁이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미완성이라서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야. 이제 이 역사의 남은 그릇에 민주적 가치를 채워 넣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군사독재의 잔재인 반인권적인 폭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물리적 폭력, 사회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왕따나 차별 등 어떤 형태로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YH 여공들이 제기했던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지금도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전반

적으로 미흡한데다,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실업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누리야, 너는 노동쟁의를 바라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통일문제이다. 부마항쟁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라는 노래가 애국가 못지않게 많이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제 대 통령이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였다는 느낌마저 들지만 너희 세대들이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세상은 더욱 넓어졌다. 세상이 넓어진 만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이라크 전쟁, 테러와 핵문제 등 아빠가 감당했던 문제들보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훨씬 많고 복잡할 것이다. 또한 국가간 경제·사회적 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등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다.

누리야, 그러나 이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마항쟁과 같은 과거의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척도임을. 그리고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며, 민주주의는 반드시 인권과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쉬지 않고 오늘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